

# 베스트셀러를 통해본 1990년의 독서시장

## 목록 다양해졌지만 새롭게 부각된 책 거의 없어

지난 한해 동안 서점을 통해 가장 많이 팔려 나간 책은 주로 어떤 것이며, 그를 통해 나타난 90년도 일반대중의 책읽기의 양상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한해를 마감하면서 서울시내 주요 서점들이 발표한 연간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히트작으로 박완서씨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김영사)가 각각 1,2위에 꼽혔다.

89년 11월 발간되기 무섭게 서점가를 강타한 「그대...」는 '반짝 베스트셀러'에게 잠깐씩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1년 가까이 상위권을 고수, 모두 40여만권이 팔려나갔으며 「세계...」는 89년에 이미 100만부에 육박하는 판매량으로 당해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그 열기가 90년까지 이어져 지난 한해만도 30여만권이 넘게 팔려나가 2위에 기록됐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진명서적 을지서적에서 각각 집계된 90베스트셀러 50선을 살펴보면, 80년대말 비로소 종합베스트셀러에 진입하기 시작한 인문·사회·자연과학도서들이 지난해엔 50위 목록내에 20%나 차지하며 대거 등장한 점이 두드러진다. 50위에 든 책을 부문별로 나누어보면 소설 15종, 비소설 11종, 시 6종, 인문·사회 8종, 자연 3종, 아동 5종, 기타 2종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분이 모두 11종을 차지, 예년에 서너권에 그치던 것이 대폭 증가한 반면, 8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 세력을 과시했던 시집부문이 겨우 6종만 진입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설·비소설이 베스트셀러 50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강세는 여전하지만 아동도서 역시 일정한 지분을 차지, 일단 부문별로는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권은 문학류가, 하위권은 인문·사회·자연쪽이 분담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의 비율은 2.5:1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편.

### 80년대에 비해 독자취향 변화 두드러져

각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설의 경우 중견여류작가 2인의 작품이 종합에서도 1,3위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영화소설이 득세했다.

1위를 차지한 박완서씨의 「그대...」는 여주인공이 우리사회 곳곳에 버티고 선 가부장제 질서와 여성차별의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이며, 「물위를...」은 수필가 신달자씨의 첫 장편소설로 가정주부로 자기삶을 성숙시켜가는 한 여성과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또다른 한 여성을 서로 대비시켜 놓은 작품. 전자의 경우 작가 특유의 입담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에 힘입어 읽는 재미가 크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당면문제를 실감나게 다룬 것이 독자를 강력히 흡입한 이유라는 게 일반적인 평. 후자의 경우는 정통 여성문제소설과는 거리가 있지만 인기의 비결은 「그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적 고민을 담았다는 게 중론.

중수면에서는 그 어느 부문보다 많은 15종의 소설부문 베스트셀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종이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소설화한 것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소설의 대중적 인기로 힘입

어 TV·영화화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미국 10대들의 학교생활을 담은 「죽은 시인의 사회」(클라인 바움·성현)를 비롯해 「그대 가끔 하늘을 보자」(송정연·고려원) 「비오는 날의 수채화」(곽재용·대홍) 「○심야」(배근택·대홍) 등이 대표적.

이에 반해 본격문학작품에 해당하는 소설로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인 「마음의 감옥」(김원외 외·문학사상사)뿐으로 그나마 유명작가들의 대표단편모음인데다 순위도 하위(교보 48위, 종로 36위)에 겨우 들어와 순수문학작품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석권하던 80년대 후반의 독자취향이 많이 변화된 것을 감지케 한다.

이밖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이문열·자유문학사)와 「성자가 된 청소년」(바바하리다스·정신세계사)는 89년에 이어 올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품들이며, 나머지 책들도 대체로 '애정문제'나 '교육문제'가 주종을 이루는데 교보문고가 집계한 판매량은 작년비 7.8% 증가.

### 일기 쉽게 풀이책들도 큰 인기

비소설 부문은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를 위시해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필립 체스터필드·을유문화사) 「빵장수 야곱」(노아 벤사·김영사) 「절망이 아닌 선택」(웨인 W. 다이어·고려원) 등 89년의 베스트셀러가 순위만 다소 뒤바뀌면 90년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린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

때문지 않은 한 원시인의 눈을 통해 문명의 모순을 지적한 「빠빠라기」(에리히 쇼일만·정

신세계사)가 색다른 주제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 이외는 대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지침서'와 「0에서 하나까지」(김남조 외·홍익) 「사랑의 광세」(김대규·한겨레) 등 '사랑'을 소재로 한 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시 부문은 각 서점 종합, 「만남에서 동반까지」(박렬·명선사)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칼릴 지브란·진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더 마음절어는 것은 작은 웃음이다」(서은영·박우사)가 1,2,3위를 차지했고 50위안에 든 나머지 시집들도 한결같이 이름도 약력도 분명치 않은 무명시인들의 통속 시집들이다.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주 독자층으로 짐작되는 이들 시집들은 대부분 사랑·이별·고독 등의 정서를 기초음으로 서투른 인생관을 펼쳐보이고 있는데, 이같이 언어유희에 가까운 시집류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게 곧 사회문제라며 평단의 호된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

지난 한해의 가장 특징적인 베스트셀러 현상으로 일반독자들의 다채로운 관심을 담아냈던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철학에세이」(편집부·동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류시민·푸른나무)가 지난 83년 이래 90년에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인문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과학부문에는 '경제서'가 예년없이 호황을 누렸다.

80년대 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주도했던 이데올로기 및 정치관계서적들이 뚜렷한 퇴조를 보이는 가운데 등장한 경제서적은 대체로 실생활에 보다 밀착되면서, 경제문제를

기이와 넓이  
도서출판

738-7840 / FAX 737-0872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37의 1

生命의 신비는 깊습니다. 生命이 현실화된 삶과 삶이 만나는 마당은 넓습니다.

### 내면의 불꽃

불교와 기독교를 내적인 차원에서 탐구한 책 / 윌리엄 존스톤 지음 / 정창영 옮김

### 잠든 하나님 깨우기

내면에 깃들어 있는 神性を 깨워내기 위한 명상법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소개하여 주고있는 책 / 요엘 골드스미스 지음 / 나종근 옮김

### 미꾸라지 龍되는 게 역사 아니더냐

동양적인 시각에서 기독교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동양을 재해석한 책 / 방인근 지음

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책은 애당초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읽히고 싶어서 활자를 하나하나 깎고 새기던 정신이 책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것이 출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정신이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새로운 정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된 정신이 이루어 낼 새하늘과 새땅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정신, 이러한 희망으로 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돈 때문에 책 만드는 정신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직관적인 동양정신과 이성적인 서양정신의 조화를 구하는 정신이 깃든 책을 펴내겠습니다. 또 지식의 오퍼상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짜맞추는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간직한 책도 펴내겠습니다.

### 창세기의 비밀

성서를 여는 열쇠인 상징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풀이한 책 / 정창영 역음

### 잃어버린 하나님 찾기

사랑을 통해 현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현대인의 북음서 / 버지니아 몰렌코트 지음 / 박성진 옮김

### 그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설교를 모은 책 / 강일상 지음



알기 쉽게 풀어쓴 경제해설서이거나 돈별이 정보를 알려주는 실용도서가 주종.

특히, 각 서점 사회과학부문 1위에 오르면서 종합 5위(교보), 17위(종로)에 랭크된 「자본주의·공산주의」(이원복 외·동아출판사)는 경제학분야의 스테디셀러인 송병락교수의 「마음의 경제학」을 저본으로 이원복교수가 만화화한 것으로 18여만부라는 획기적인 부수를 자랑하며 큰 인기를 누림으로써 어려운 책의 쉽게 쓰기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경제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이영탁·김영사) 「작은 밑천으로 돈버는 이야기」(매경유통경제

부·매일경제신문사), 「땅팔자 사람팔자」(김양석·동학사) 등도 순위안에 들었다. 이중 「땅팔자...」는 이 방면의 책 대부분이 경제정의 실현에 입각해서 부동산투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부동산투기방법을 소개, 일반인들의 제테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자연과학 부문 역시 쉽게 풀어쓴 교양과학도서가 비록 하위권에 머물지만 순위안에 진입했다. 「재미있는 물리여행 1·2」(루이스 엡스타인·김영사), 「이야기 파라독스」(마틴 가드너·사계절), 「시간의 역사」(스티븐 호킹·삼성이데아) 등. 전문분야도 씹어지는 방법에 따라 독자수가 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자연과학분야 도서의 대거진입은 바로 이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

이동도서는 전년도에 비해 50위안에 들어선 종수가 줄어든 한편 「오싹오싹 공포체험」(편집부·대교출판) 「공포의 유령대소동」(김영훈 외·지경사) 등의 귀신 유행이야기가 인기를 모은 가운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성장기를 적은 「세계를 가슴에 안고」(이영호·계몽사)와 아동문학가 권정생씨의 「몽실언니」(창작과비평사)도 순위에 진입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서점에 와 구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선택이 치우치고 있으며, 출판사들의 장사속도 이에 한몫하여 어린이정서를 해치고 있다고 서점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종합베스트셀러 50위를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고려원 6종, 김영사 5종, 정신세계사가 3종씩 50위안에 선보였고, 자유문학사, 을유문화사, 대흥, 진선, 대교 등이 각각 2종씩을 내놓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출판사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몇군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서점별로는, 교보와 종로서적이 50위 내에서 순위만 조금씩 뒤바뀔 뿐 대체로 비슷한 목록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직장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을지서적과 지방서점들에 책을 공급하는 진명서적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을지서적의 경우, 경제·경영분야나 실용서가 크게 인기를 끄는데 「전예측 1990년대의 일본」(미스비서연구소·청계연구소), 「새로운 현실」(R.F 드러커·시사영어사)가 각각 1,2위에 랭크돼 있고, 뒤이어

쉬운 경제에세이나 제테크도서가 차지하고 있으며, 「환상의 드라이브코스」(최동욱·나남), 「운전면허 2주완성」(연구회·크라운), 「MS-DOS 입문」(김우용·영진출판사) 등도 종합 50위 안에 진입, 직장인들의 관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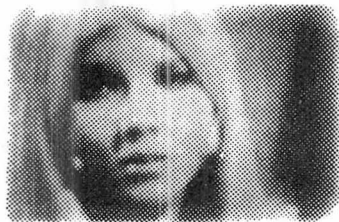
### “그러나 권할만한 책은 드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90년의 베스트셀러들은 몇몇 주목 끌 만한 시도가 있긴 했으나 많이 팔렸다는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부여를 할 수 없는 ‘수준미달’의 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이를 분석해본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

“순위별로 판매량의 낙차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보는 분위기가 책목록을 다양하게 꾸며놓긴 했으나, 솔직히 말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중에는 마음놓고 권할 책이 없다”고 말하는 교보문고 정석희 과장은 “베스트셀러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내(나)’인 데서 보이듯 개인주의적 성향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음을 책판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해라’ ‘...다’는 등의 사뭇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제목자에서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의 심성을 읽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정혜옥 기자

**국내최초공개!**  
“우주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N.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성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어>이야기—

- 주요목차●
- 농부<마이어>사건의 충격●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인류조상은 누구인가●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우주인의 사랑과 생활●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예수 탄생의 비밀●IBM보오겔 박사의 증언●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엮음●정우인 옮김●사진제공 농부 마이어●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